

# 무주천마 인지도·판매망 확산

### 대전역사 지하상가에 무주천마 홍보판매장 운영 가공식품 판매

무주에서 생산되는 천마 가공식품이 대전광역시에서 유통 판매될 전망이다. 대도심권에 무주천마 전문 홍보판매장을 조성해 판매망 확대와 함께 무주천마의 인지도를 올려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취지다.



천마제품.

무주군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판매장 임대 계약을 맺고 다음달 초부터 대전역사 지하상가에 마련된 무주천마 홍보판매장을 운영, 무주천마 가공식품 판매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주군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오는 2031년 8월 12일까지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향후 10년 동안 무주만의 독특한 제품으로 꼽히는 천마 가공식품이 진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지하상가 홍보판매장에서는 건천마를 비롯해 천마분말, 천마환, 천마엑기스, 천마고, 천마국수, 천마차, 천마젤리, 천마누룻지 등 다양한 천마 가공제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매장 컨셉은 무주 천마의 독자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깔끔하게 구성해 천마제품을 돋보이게 한 점이 특징이다. 이로써 홍보판매장을 거점으로 무주천마 마케팅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수요구조를 만들어 향후 천마 사업단 자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무주군의 천마 재배면적은 62.7ha(전국 50%), 생산량은 연간 3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시군 단위 농특산물 판매장을 비롯한 롯데백화점, 자매도시인 기장군과 경기도 부천시, 그리고 서울시 농부시장 농특산물 판매 전시장에서 전국의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어 내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의 천마 가공식품은 이미 전국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전국 판매망을 통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며 "이번 대전역사 홍보판매장 운영으로 무주천마의 판매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은 무주천마사업단과 함께 양질의 품종의 천마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연구결과와 유상생식에 의한 우량 자마 연구·생산·증식·보급 체계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쏟고 있다.

무주천마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19.7.9.)에 따라 전라북도 연구개발 특화작목으로 선정됐으며, 주 재배단지는 무주군 안성면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24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한국지역발전산업연구원 주관으로 해당 팀장들과 2030 장수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 2030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최선

### 장수군, 문화·경제·복지·인구정책 등 분야별 수립 정책 추진

장수군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새로운 목표 설정을 위해 2030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나서 주목된다.

장수군에 따르면 24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한국지역발전산업연구원 주관으로 해당 팀장들과 2030 장수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군은 한국지역발전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은 기 수립된 장수군 종합발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장수군의 미래를 위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발전 전략에 중점을 뒀으며,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 정립도 이뤄진다.

장수군은 ▲장수 가이문화의 발전 및 세계화 방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최적화된 복지인프라 구축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청년 정책 활성화 및 청년

들의 정착 기반 마련 확대 ▲군민이 주도하는 자치행정 실현 방안 등 문화·경제·복지·인구정책 등 분야별 세부종합계획을 수립해 촘촘하고 탄탄하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원 측의 보고회를 시작으로 담당부서 팀장들과 장수군정 기본 구상, 권역별·부문별 개발계획, 전반적인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분야별 발전전략의 핵심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2030 핵심 전략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군정 운영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군민이 공감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및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더 풍요로운 장수,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사과 '홍로'·포도 '캠벨'·'진옥' 수매 개시

### 수매가격·일정 고시

무주군은 전라 품목인 사과 '홍로'와 포도 '캠벨', 그리고 '진옥' 품목에 대한 수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23일부터 시작된 2021년 농산물 수매 사업은 '무주군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수매1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오는 9월 10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수매 장소는 '사과(홍로)'가 무주농협 안성 친환경유통사업단(안성면 중산길 26), 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풍면 삼도봉로 1077), '포도(캠벨과

진옥)'가 설천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천면 무설로 1254)이다.

수매가격은 품위별로 차이가 있으며 사과 '홍로' 품목은 40내 '상' 등급 품위 기준으로 1kg당 5,500원이다. 포도 '캠벨'과 '진옥' 품목은 일반 농산물이 1kg당 5,000원, 친환경농산물은 1kg당 6,000원이다.

전년 수매가격 대비 사과 '홍로'가 1,000원, 포도 '캠벨'과 '진옥'은 친환경농산물 기준 1,900원이 상승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화과 공유농업 윤수진 팀장은 "수매가격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무주반딧불조합공공사업법인이 품목별 예년가격과 올해 재배면적, 시장가격변동추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하고 참여 농협과 무주군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무주군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수매사업이

팍 늘린 농가에게는 보람을 안기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무주반딧불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 더(the) 맛 집' 6곳 선정·발표

무주군이 '2021 무주 더(the) 맛 집' 6곳을 선정·발표했다. ▲구천동 미향가든(오리찰휴구이 / 설천면 구천동로 922) ▲구천동 별미가든(산채정식 / 설천면 구천동로 948) ▲산들애(능이 두부버섯전골 / 설천면 만선1로 94) ▲산성가든(오리불고기 / 적상면 산성로 38) ▲원초해매맛집(보쌈정식 / 설천면 구천동로 101) ▲천지가든(천지정식 / 무주읍 과목로 1313) 등 6곳이다.

'무주 더(the) 맛 집'은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숨어있는 맛 집을 발굴·올해 처음 선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무주군은 신청을 받은 29개 식당에 대한 ▲자격여·부 심사(서류)와 ▲전문기관의 현장평가(1차),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암행평가(2차)를 통해 해당 식당의 운영철학, 전통성, 메뉴 적정성, 서비스, 위생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화과 푸

드플랜팅 허준철 팀장은 "이번에 발굴한 무주 더(the) 맛 집 6곳이 무주군 외식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맛 집의 탄생을 도모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1 무주 더(the) 맛 집'에게는 경영진단을 비롯한 메뉴 컨설팅, 홍보 마케팅, 인테리어 제공 등 식당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 업체 컨설팅의 특전이 주어지며 '무주 더(the) 맛 집' 인증 현판 부착과 군 홈페이지 및 관광지도 등재, SNS 온라인 홍보 등도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농산물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

진안군은 24일 전주시 호성동에 위치한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 농산물에 대해 납품계약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8년 로컬푸드 개장 이래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8년 284건, 2019년 360건, 2020년 435건, 올해 상반기에는 23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320성분 이상)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대상 품목은 경영채류, 특산물 등이며 채소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장 출하 전과 출하 후 모니터링 단계로 나누어 조사한다. 농가가 로컬푸드 매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농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납품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또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매월 20건씩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어 안전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로컬푸드 관계자는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생산현장에서 관행적인 농약사용과 미등록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동네작가' 가 도시민 유치 나선다

무주군이 6개 읍면의 마을주민 중 귀농귀촌의 생생한 정보통이 돼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에 나선 '동네작가'를 선정,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네작가를 선정해 동네 환경과 사정에 밝은 지역주민들이 지역기반을 담은 정보를 SNS에 제공하면서 한 차원 높은 유치 활동을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말까지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6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2명씩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한 도시민 유치활동에 나선 계획이다.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귀농귀촌 선배가 희망자에게 현장 경험담을 SNS 콘텐츠로 쉽게 소개하기 위한 귀농귀촌 SNS 서포터즈다.

이들 동네작가는 마을 소개를 비롯해 귀농·귀촌 성공사례와 재능 나눔을 소개하고 전통시장과 지역문화·관광지 등의 주제로 도시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지역기반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귀촌협의회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

장수군이 오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22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장수군 예산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발전형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다.

장수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방법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서면,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공모 마감 이후 관련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